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 문제중심 및 정서중심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

김주의* · 김병조**

요약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과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다문화청소년은 이중문화 환경에서의 긴장, 차별, 언어 장벽 등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중심 및 정서중심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 2기 1차(2019) 자료를 활용하고, 대처 전략을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라는 행태적 지표로 개념화하여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중심 대처 전략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학교생활적응을 촉진하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부정적 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정서적 대처 전략이 학교적응을 촉진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입은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실제로 접근·활용을 강화하고 정서적 지원과 연계된 체계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대처 이론을 다문화청소년에 적용하여 대처 전략의 유형별 효과를 검증하고 해석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이론적·실천적 기여를 제시한다.

주요어 문화적응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스트레스-대처 이론, 대처 전략

* 제1저자,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kimjooui@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교수,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겸무연구원, bjkim20@snu.ac.kr

1. 서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단일 민족과 문화로 구성된 동질적 사회라기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개인들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Berry 1997; Sam and Berry 2010; Suárez-Orozco et al. 2009b). 이에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의 유입 증가로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청소년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유봉애·옥경희 2013; Kim et al. 2017). 이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은 ‘경계인’이 아닌 사회통합의 핵심 주제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학술적 과제이자 정책적 책무로 부상하고 있다(Motti-Stefanidi and Masten 2013; Sirin and Rogers-Sirin 2015).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과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하는 핵심 발달 단계이다. 이 시기의 경험은 개인의 장기적 사회적 역량, 정신건강, 교육적 경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Coll et al. 1996; Erikson 1968; Phinney 1992). 학교는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의 습득, 제도적 규범의 내면화, 정서적 소속감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발달 경로를 구조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맥락으로 기능한다(박동진·김송미 2023; Osher et al. 2008; Wang and Holcombe 2010).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은 언어적 제약, 문화적 거리감, 사회적 낙인과 같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보다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강화·배은경 2018; Noh and Kaspar 2003; Yakushko 2010). 이는 심리적 긴장과 고립감, 정체성 혼란을 유발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이어진다(Berry 1997; Berry et al. 2002).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이질적 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차별, 소외, 긴장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Berry 2006; Ward 2001), 단순한 스트레스 상황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Sirin et al. 2013; Yakushko 2010). 특히 다문화청소년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성인 이주자보다 더 자주, 더 깊이 경험하며(Motti-Stefanidi and Masten 2013), 이는 발달 스트레스와 이주 스트레스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 부담으로

나타난다(조연·손은령 2021).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손은영·서호찬 2022; 이상균 외 2012; Bhattacharya 2000; Juang and Alvarez 2010). 학교생활적응은 단순한 학업 성취를 넘어 또래관계, 교사와의 상호작용, 학교 규범 수용, 심리적 안정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된다(Lakhani et al. 2017; Wang and Eccles 2012). 학교생활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지가 관건이다(Connor-Smith and Compas 2002; Lazarus and Folkman 1984).

라자루스와 포크만(Lazarus and Folkman 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은 스트레스를 단순한 외부 자극이 아닌, 개인의 인지와 대처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심리적 과정으로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처 전략은 문제중심 대처(problem-focused coping)와 정서중심 대처(emotion-focused coping)로 구분된다(Carver et al. 1989; Compas et al. 2001). 전자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변화시키려는 행동을, 후자는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려는 반응을 의미한다(Carver et al. 1989; Compas et al. 1988). 기존 연구(Jose and Huntsinger 2005; Park et al. 2004)에서는 대처 전략이 스트레스와 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서 어떤 대처 전략이 더 효과적인지 뿐만 아니라 전략 자체의 활용 가능성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쟁적이다. 특히 차별이나 배제, 언어장벽 등 구조적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문제중심 대처 전략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오히려 정서중심 전략이 상황적으로 더 적합할 수 있다(Mattlin et al. 1990; Pearlin and Schooler 1978; Yakushko 2010). 또한 청소년기는 아직 완전한 자율성과 문제 해결 자원이 부족한 시기로, 대처 전략의 선택과 효과는 성인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Chun et al. 2006; Heidinger 2023; Kuo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대처 전략의 유형에 따른 효과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거나, 스트레스-대처-적응 간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통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 전략—문제중심 및 정서중심 대처 전략—의 매개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두 전략 유형이 각각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과 기여를 가진다. 첫째, 라자루스와 포크만(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을 다문화청소년에 구조적으로 적용하였다. 특히 문제중심 대처 전략과 정서중심 대처 전략이 스트레스와 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기제로 작동하는지 비교함으로써 이론의 설명력을 확장한다. 둘째, 기존의 문제 해결 추구 대처 전략 우위 가설과 달리, 정서적 지지 추구 대처 전략의 유의성을 밝힘으로써 전략의 맥락 적합성과 상황 반응성에 대한 논의를 촉진한다(Folkman and Moskowitz 2004; Skinner and Zimmer-Gembeck 2007). 셋째, 이 연구는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다문화청소년 개인이 선택하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행태적 지표로 해석하고 측정함으로써 다양한 다문화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심리·사회적 분석 관점을 제시한다(Suárez-Orozco and Marks 2016). 다만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가 반드시 자율적 선택이거나 전략적 판단의 결과는 아닐 수 있으며, 부모나 학교의 주도에 의한 수동적 참여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개인이 선택하는 대처 전략의 형태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참여 동기의 자율성, 개입의 질 등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논의한다.

2. 이론적 논의 및 가설도출

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국내외에서 중요한 정책적·학술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Berry 2006; Motti-Stefanidi and Masten 2013; Suárez-Orozco et al. 2009b).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 혼

란, 사회적 배제, 문화적 낙인 등 구조적 긴장을 경험하며,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라는 심리·사회적 현상으로 표출된다(Berry 1997; Ward 2001; Yakushko 2010).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이질적인 문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 불안, 차별감, 소외감 등 복합적인 심리적 부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Berry et al. 2002; Noh and Kaspar 2003). 특히 다문화청소년은 언어적 제약, 사회적 고립, 또래의 배제 등에 따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며(Motti-Stefanidi and Masten 2013; Sirin et al. 2013), 이는 학업, 사회관계, 정서 안정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school adaptation)은 단순한 학업 성취를 넘어, 또래 및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학교 규범과 기대의 수용, 학업 과정에서의 몰입, 심리적 안정감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된다(Wang and Eccles 2012; Xie et al. 2022).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학업 몰입의 저하, 교우 관계 갈등, 소속감 감소, 우울 및 불안 증가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실증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Sirin et al. 2013; Suárez-Orozco et al. 2009). 예컨대, 주앙과 알바레스(Juang and Alvarez 2010)는 미국 아시아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교사 및 또래와 관계 악화 및 학업 몰입 저하와 관련됨을 밝혔다. 국내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과 부정적 상관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상균 외 2012; 손은영·서호찬 2022).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외부적 자극으로서 비롯되는 동시에 개인의 인지적 해석과 반응 방식에 따라 적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개 메커니즘(mediating mechanism)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탐색이 요구된다(Connor-Smith and Compas 2002; Lazarus and Folkman 1984).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우선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대처 전략의 매개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스트레스-대처 이론과 대처 전략

라자루스와 포크만(1984)이 제안한 스트레스-대처 이론(stress-coping theory)은 스트레스를 단순한 외부 자극이 아닌,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심리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인지적 평가 과정에 따라 개인은 다양한 대처 전략을 사용하게 되며, 이는 스트레스와 적응 간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Compas et al. 2001; Park et al. 2004; Skinner and Zimmer-Gembeck 2007).

라자루스와 포크만(1984)은 대처 전략을 크게 문제중심 대처(problem-focused coping)와 정서중심 대처(emotion-focused coping)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거나 제거하려는 능동적 행동(예: 정보 수집, 문제 해결 시도 등)을 포함하며, 후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감정을 완화하려는 인지적·정서적 전략(예: 회피, 수용, 정서적 지지 추구 등)을 포함한다(Carver et al. 1989; Compas et al. 1988). 두 전략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의 성격과 상황적 맥락에 따라 동시에 혹은 교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Folkman and Moskowitz 2000; Skinner et al. 2003). 이러한 전략 구분은 청소년기 스트레스 대처 전략 연구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 예컨대 프라이텐버그와 루이스(Frydenberg and Lewis 1993)는 호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라 대처 전략의 유형과 빈도가 달라짐을 확인하였으며, 문제중심 전략이 장기적 적응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정서중심 대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감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반복적 회피나 의존적 지지 추구는 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도 지적되었다(Billings and Moos 1981; Holahan and Moos 1987).

그러나 일부 연구는 통제가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중심 대처 전략의 상대적 효과가 오히려 더 유효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Kuo 2014; Mattlin et al. 1990; Park et al. 2004; Seiffge-Krenke 1993; Yakushko 2010). 청소년기는 자율성과 자기통제감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시기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행동 선택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Skinner and Zimmer-Gembeck 2007). 따라서 이 시기의 대처 전략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 정책 환경, 문화적 기대에 의해 제한되거나 유도되는 행동일 수 있다.

한편, 홉폴(Hobfoll 1989)의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은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대처를 시도하나, 누적된 스트레스는 자원 고갈을 초래하여 대처 전략의 실행 자체를 어렵게 한다고 본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었는데,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단순히 대처 전략의 유형이 달라지는 것을 넘어, 대처 전략 자체의 사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Billings and Moos 1981; Compas et al. 2001; Evans and Kim 2013; Herman-Stahl and Petersen 1996; Holahan and Moos 1987).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유형적 차이에 대한 논의에는 제한적으로 접근하거나, 하나의 대처 전략 총합 지표로 축약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대처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중재적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매우 부족하며, 특히 전략 자체의 활용이나 제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따라서 어떤 전략을 택하느냐 보다 전략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냐의 메커니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다문화청소년 맥락에서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

다문화청소년은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 차별, 언어 장벽, 낮은 사회적 지위, 제도적 배제 등은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하거나 근

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조건을 형성하며, 이는 문제중심 대처 전략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제한한다(Chun et al. 2006; Heidinger 2023; Lee and Chung 2016). 이로 인해 다문화청소년은 문제 상황을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정서적 안정, 소속감 회복, 자기 존중의 유지 등을 우선시하는 정서중심 대처 전략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Frydenberg and Lewis 1993; Kuo 2014). 특히 반복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감정 조절, 사회적 지지 활용, 회피나 수용 전략이 오히려 심리적 탈진을 방지하고 단기적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Folkman and Moskowitz 2004; Park et al. 2004).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정서중심 대처 조차 활용 빈도와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연구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자원을 소모시켜 문제 해결이나 감정 조절과 같은 대처 전략의 활용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Compas et al. 2001; Evans and Kim 2013; Herman-Stahl and Petersen 1996).

대처 전략은 반드시 내면적 조절 전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자원이나 다문화 프로그램과 같은 외부 수단을 활용하는 행동적 실천 형태로도 구현될 수 있다. 실제로 스트레스-대처 이론은 사회적 지지 추구, 서비스 이용, 제도적 개입 요청 등을 대처의 하위 유형으로 간주되며(Carver et al. 1989; Thoits 2011), 일부 연구들은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개인이 선택하는 대처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한 바 있다(Birman and Tran 2008; Sandler et al. 2000).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접근법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직면한 다문화학생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처 전략의 실천적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가령,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교육,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 교육에 참여하는 행위는 다문화청소년 개인이 문제중심 대처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들이 학교생활부적응과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고, 학교 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Birman and Tran 2008; Chun et al. 2006). 예를 들어, 언어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켜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

을 원활하게 하고 학업 성취를 높이며(Wang and Holcombe 2010), 특기적성 교육은 학생의 강점 발휘와 또래 관계 내 지지를 형성하여 학교 몰입도를 높인다(Suárez-Orozco et al. 2009b). 동일한 논리에 따라, 문화체험, 문화공연 관람, 견학 및 체험활동의 참여는 다문화청소년 개인이 정서중심 대처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직접적인 문제 해결보다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며 소속감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다(Folkman and Moskowitz 2000; Kuo 2014). 예를 들어, 문화체험 활동은 다문화청소년이 학교 및 지역사회의 규범에 익숙해지고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Kuo 2014), 문화공연 관람은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학습 및 대인관계 유지에 필요한 심리적 자원을 보존하게 한다(Folkman and Moskowitz 2000). 더불어 견학 및 체험활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확장하고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학교환경에 대한 친밀감을 높인다(Resnicow et al. 2000).

다만, 이러한 해석은 일정한 한계를 내포한다. 애초부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를 기피하거나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는 자발적 선택이 아닌 학교나 부모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 대처 전략으로 간주하는 해석은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처 전략의 ‘전통적 정의’보다 ‘분석모형 내 조작적 정의’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대처 전략의 행태적 지표로 설정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문제중심 대처 전략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 정서중심 대처 전략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2기 1차(2019) 데이터를 활용한다. 본 패널에서 의미하는 다문화청소년은 교육부의 다문화학생의 정의에 근거하여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양계민 외 2019).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2,228명이며,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하며 응답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다(김지경 외 2010).

2) 측정 변수

(1)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에서 발췌한 척도를 다문화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의 정서적 및 관계적 관점에 중점을 두고 문항 간 관련성이 낮게 나타난 1문항을 제외한 총 3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좋다”,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 좋다”이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구성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0로 나타났다.

(2) 문화적응스트레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호비와 킹(Hovey and King 1996)이 개발한 SAFE(Scale for Adolescent)를 노충래(2000)가 번안 및 수정하고, 홍진주(2004)가 재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이며 “외국인부모님

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변에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 “나의 부모님이 외국인이라고 친구들이 따돌린다”이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8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대처 전략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의 참여이다. 대처 전략은 내면적 뿐만 아니라 제도적 자원 및 다문화 프로그램의 참여 등과 같은 외부 행동도 포함될 수 있다(Folkman and Moskowitz 200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①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 ②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영혜·김다경(2016)에서 다문화청소년 대상 다문화가족정책 항목을 발췌하여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교육, 교과목 학습지도 프로그램, 특기적성 교육을 선정하였고,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의 사례로 문화체험, 문화공연 관람, 견학 및 체험활동을 선정하였다. 해당 변수는 “작년 조사 이후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를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으며,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 0, 있는 경우 1로 더미 처리하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박동진·김송미 2023; 이상균 외 2012; 이래혁·장혜립 2019; 유봉애·옥경희 2013)를 바탕으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0=남, 1=여), 거주 지역 규모(0=비대도시, 1=대도시), 어머니 학력(0=고졸 미만, 1=고졸 이상), 어머니 출신국은 중국(한족, 조선족 및 기타 민족 포함),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기타 등 6개의 범주로 구성하여 통제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가정 형편에 대한 지각으로 1점(매우 어렵다)에서 5점(매우 잘산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부모 변수 중 어머니 관련 변수만을 활용한 것은 다문화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 지원의 주체로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자녀의 학업 지원, 문화자원 접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과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이다(Birman and Trickett 2001).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문제중심 대처 전략 및 정서중심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였다. 모수 추정에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χ^2 , CFI, TLI, RMSEA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매개변수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tata 19.5를 통해 수행되었다.

한편,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자료 분석 전략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 가지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두 가지 매개변수를 하나의 모형에 통합한 통합모델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매개변수를 분리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두 가지 매개경로를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모형의 모델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바론과 케니(Baron and Kenny 1986)의 회귀분석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모형의 대처 전략이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라는 두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계적 요인 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세 가지 추가 분석을 통해 이 연구가 발견한 매개효과와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은 다음 <표 1>에 제시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은 남자 1,094명(49.1%), 여자 1,134명(50.9%)으로 여자가 소폭 더 많았다. 거주 지역은 '경인(경기+인천)'이 622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권' 554명(24.9%), '충청 및 강원권' 396명(17.8%), '전라 및 제주권' 393명(17.6%), '서울' 263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 규모는 '비대도시'가 1,487명(66.7%)으로 '대도시' 741명(33.3%)보다 많았다. 어머니의 출신국은 '베트남'이 764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국' 394명(17.4%), '중국(조선족)' 352명(15.5%), '필리핀' 213명(9.4%), '기타' 338명(14.9%), '일본' 123명(5.4%), '태국' 44명(1.9%)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상'이 1,560명(70%), '고졸 미만' 668명(30%) 이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다'가 1,358명(60.9%)으로 가장 많았고, '어려운 편이다' 551명(24.7%), '잘사는 편이다' 201명(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228)

변수명/항목	빈도(명)	비율(%)	변수명/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어머니의 학력		
남성	1,094	49.1	고졸 미만	668	30.0
여성	1,134	50.9	고졸 이상	1,560	70.0
거주 지역			어머니의 출신국		
서울	263	11.8	중국	746	33.5
경인	622	27.9	베트남	764	34.3
충청 및 강원권	396	17.8	필리핀	213	9.6
경상권	554	24.9	일본	123	5.5
전라 및 제주권	393	17.6	태국	44	1.9
			기타	338	15.2

거주 지역 규모			가정의 경제적 수준		
대도시	741	33.3	아주 어렵다	110	4.9
			어려운 편이다	551	24.7
비대도시	1,487	66.7	보통이다	1,358	61.0
			잘사는 편이다	201	9.0
			아주 잘 산다	8	.4

2)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특성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문화 적응스트레스의 평균은 1.23점(SD=.45), 학교생활적응의 평균은 3.30점(SD=.51)로 나타났다. 문제중심 대처 전략과 정서중심 대처 전략의 평균값은 각각 .89점(SD=1.16), .96점(SD=1.81)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은 문화적응스트레스($r=-.21; p<.001$)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교생활적응은 문제중심 대처 전략($r=.05; p<.05$)과 정서중심 대처 전략($r=.09; p<.001$)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문제중심 대처 전략($r=-.08; p<.001$)과 정서중심 대처 전략($r=-.13; p<.001$)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2,228)

	M	SD	1	2	3	4	5	6	7	8	9
1. 문화적응스트레스	1.23	.45	1								
2. 학교생활적응	3.30	.51	-.21 ***	1							
3.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	.89	1.16	-.08 ***	.05*	1						
4.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	.96	1.81	-.13 ***	.09 ***	.57 ***	1					
5. 성별	.51	.50	.05	-.08 ***	.01	.00	1				
6. 거주지역 규모	.33	.47	.05	.05	-.08 ***	-.11 ***	.04	1			
7. 어머니 학력	.70	.46	.03	.02	.01	.04	.05	.06	1		

8. 어머니 출신국	4.2	2.1	.06	-.03	.05	.02	.01	-.04	.10 ***	1	
9. 경제적 수준	2.6	.70	-.04	.05	.00	.03	.01	.00	.09 ***	-.03	1

*** $p < .001$, ** $p < .01$, * $p < .05$

3)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관측변수의 요인적재량은 유의수준 .001이내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적합도 지수로는 $\chi^2 = 465.21$, $df = 84$, $CFI = .967$, $TLI = .959$, $RMSEA = .045$, $SRMR = .032$ 로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Chronbach α)		측정 항목	t값	표준화 계수
문화적응스트레스 (.88)		외국인 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고정	.69
		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87.41***	.81
		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75.11***	.77
		주변에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	97.67***	.83
		나의 부모님이 외국인이라고 친구들이 따돌린다.	74.38***	.77
학교생활적응 (.70)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이다.	고정	.60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좋다.	41.12***	.76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 좋다.	33.61***	.64
대처 전략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 (.66)	한국어 교육	고정	.52
		이중언어 교육	28.64***	.55
		교과목 학습지도 프로그램	34.73***	.63
		특기적성 교육	32.29***	.60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 (.81)	문화체험	고정	.71
		문화공연 관람	73.43***	.81
	견학 및 체험활동	72.67***	.80	

4) 구조모형의 측정 결과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대처 전략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beta=-.33, p<.001$)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쳐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둘째,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beta=-.08, p<.001$)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셋째,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beta=-.11, p<.001$)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며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는 학교생활적응($\beta=.12, p<.001$)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쳐 가설 3은 지지되었다.

표 4. 직접 및 간접효과 분석 결과와 가설 채택 여부

가설	경로		B(β)	SE	채택 여부
1	문화적응 스트레스	→ 학교생활적응	-.33*** (-.33***)	.03	지지
2	문화적응 스트레스	→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	-.08*** (-.12***)	.02	기각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	→ 학교생활적응	-.01 (-.01)	.05	
	문화적응 스트레스	→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 → 학교생활적응	.00 (.00)	.00	
3	문화적응 스트레스	→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	-.11*** (-.15***)	.02	지지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	→ 학교생활적응	.12** (.09**)	.05	
	문화적응 스트레스	→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 → 학교생활적응	-.01* (-.01*)	.00	

1) *** $p<.001$, ** $p<.01$, * $p<.05$

- 2) 모형의 적합도(Goodness-of-fit statistics): $\chi^2=1350.447$, $df=122$, $CFI=.884$, $TLI=.847$, and $RMSEA=.067$.
- 3) 모든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문제중심 대처 전략과 정서중심 대처 전략을 매개변수로 포함한 통합 모형의 적합도는 $\chi^2= 1350.447$, $df=122$, $CFI=.884$, $TLI=.847$, and $RMSEA=.067$ 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두 매개변수 각각의 경로를 독립적으로 분석한 부분 모형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아래 <그림 1>은 연구 모형의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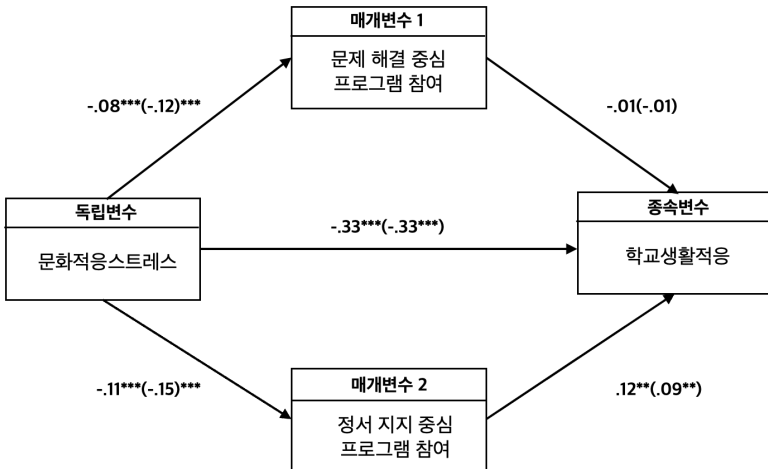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결과

*** $p<.001$, ** $p<.01$, * $p<.05$; 괄호 안은 표준화 경로계수.

<표 5>는 매개변수의 총효과(total effect)를 직접 효과(direct effect)와 간접 효과(indirect effect)로 분해한 결과이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총효과는 $-.347$, 직접효과는 $-.334$ 이며, 정서중심 대처 전략을 매개한 간접효과($\beta=-.013$;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문화적응스트레스 → 학교생활적응	-.334***	-	-.347***
문화적응스트레스 →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 → 학교생활적응	-	.000 (ns)	
문화적응스트레스 →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 → 학교생활적응	-	-.013*	

*** $p < .001$, ** $p < .01$, * $p < .05$

5) 추가 분석

(1) 구조방정식의 분리 모형

본 연구는 당초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 전략, 학교생활적응 간의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통합모형의 적합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한 분리 모형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만을 포함한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292.924$, $df = 96$, $CFI = .977$, $TLI = .969$, $RMSEA = .030$ 으로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다. 아래 <그림 2>는 위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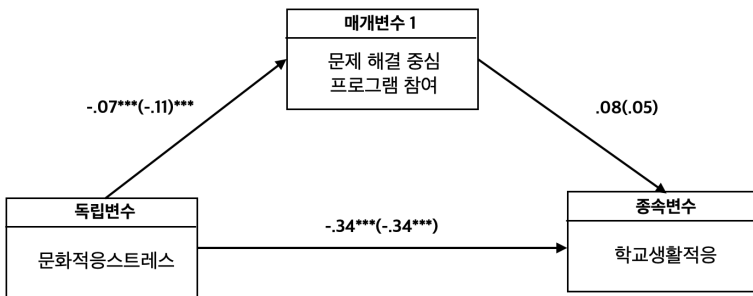


그림 2.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의 매개 효과

*** $p < .001$, ** $p < .01$, * $p < .05$; 괄호 안은 표준화 경로계수.

아래 <그림 3>은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의 매개 효과만을 포함한 연구 결과이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208.652$, $df=81$, $CFI=.987$, $TLI=.982$, $RMSEA=.027$ 로 매우 양호하다. 각 매개변수를 독립적으로 고려한 모형은 통합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과 간명한 경로 구조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두 전략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해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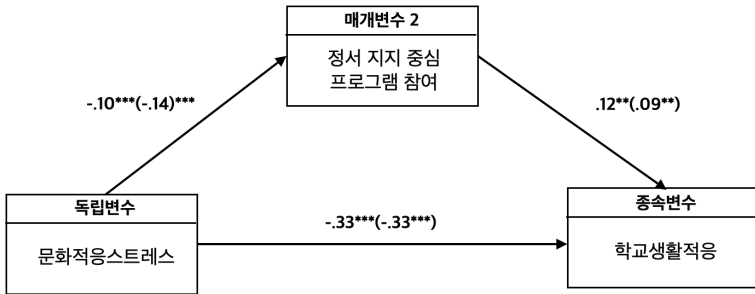


그림 3.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의 매개 효과

*** $p<.001$, ** $p<.01$, * $p<.05$; 괄호 안은 표준화 경로계수.

(2) 바론과 케니의 3단계 회귀분석

바론과 케니(1986)가 제시한 회귀분석 절차를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독립→매개)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beta=-.42$, $p<.001$)와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beta=-.17$, $p<.001$)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독립→종속)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13$, $p<.001$). 3단계(독립, 매개→종속)에서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는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89$, $p<.001$). 즉, 정서중심 대처 전략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바론과 케니의 3단계 회귀분석

단계	변수	R ² (adj R ²)	B(SE)	β	t	F
1	문화적응스트레스 →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	.182 (.179)	-.38 (.02)	-.42	-21.56 ***	82.15 ***
	문화적응스트레스 →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	.043 (.041)	-.12 (.02)	-.17	-7.91 ***	16.79 ***
2	문화적응스트레스 → 학교생활적응	.029 (.027)	-.07 (.01)	-.13	-6.21 ***	11.11 ***
3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 → 문화적응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01 (.01)	-.01	-1.10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 → 문화적응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64 (.01)	.89	87.87 ***	
	문화적응스트레스 → 학교생활적응	.785 (.784)	.01 (.01)	.01	1.03	1010.51 ***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는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중심 대처 전략 경로의 Z값이 -7.88($p < .001$)로 나타나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에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위계적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처 전략을 단일 차원으로 통합하지 않고,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와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를 각각 독립된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두 하위 요인이 모두 상위 개념인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위계적 요인 분석을 통해 상위 요인과 하위 요인의 위계적 관계를 추가로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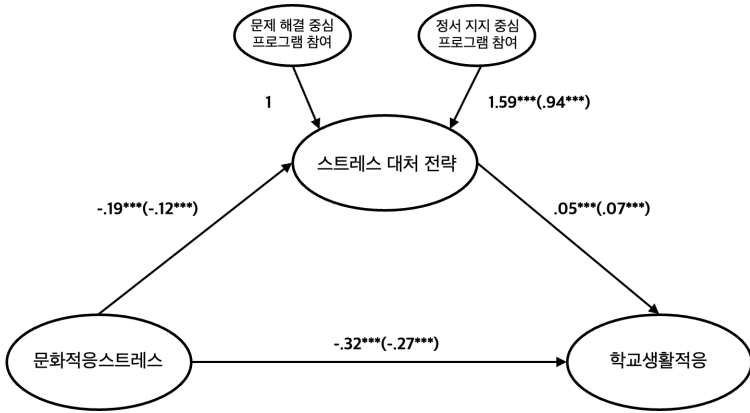


그림 4. 위계적 요인 분석

*** $p < .001$, ** $p < .01$, * $p < .05$; 괄호 안은 표준화 경로계수.

분석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상위 요인으로서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beta = -.19$; $p < .001$), 스트레스 대처 전략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5$; $p < .001$). 또한,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와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 모두 상위 요인에 강하게 부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ambda = 1.00 - \lambda = 1.59$; $p < .001$). 이러한 결과는 대처 전략을 단일 차원으로 개념화하는 모형 또한 지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논의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대처 전략으로서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와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활용한 분석 결과, 세 가지 주요 경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가설 1과 관련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 언어 장벽, 사회적 배제 등의 스트레스가 학업 참여, 또래 관계, 정서적 소속감 등 학교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손은영·서호찬 2022; Juang and Alvarez 2010; Lee and Jeong 2021). 이로써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단순한 심리적 불편이 아니라, 학교 적응을 결정짓는 구조적 요인으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처 전략으로서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를 실천적 표현으로 간주하고 측정하였다. 가설 2의 검증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경로는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문제중심 대처 전략은 매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심리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의 성격이 반복적이고 통제 불가능하여 문제 해결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Chun et al. 2006; Heidinger 2023).

셋째, 가설 3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변수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 조절, 정서적 안정, 사회적 지지 확보 등의 정서중심 전략이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의 누적된 스트레스가 자원 고갈을 초래하여 프로그램 접근과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가 스트레스 대응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프로그램 참여와 정책 개입을 단순한 환경 자원이 아닌 심리·사회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2) 이론적 함의

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유형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이 연구는 라자루스와 포크만(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을 다문화 청소년이라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맥락에 구조적으로 적용하고, 그 적합성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이 이론을 주로 성인 집단이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해 왔으며(Compas et al. 2001; Skinner and Zimmer-Gembeck 2007), 이주 배경 청소년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이 이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의 인지적 평가와 대응 전략이라는 고전 이론을 다문화청소년의 반복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 조건에 맞춰 재검토함으로써, 스트레스-대처 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를 동시에 제시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유형별 효과성에 대한 기존 이론의 보편성 가정에 도전하였다. 기존 이론 및 다수의 실증 연구는 문제중심 대처 전략이 전반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일반론에 기초하고 있었다(Carver et al. 1989; Frydenberg and Lewis 1993).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문제중심 대처 전략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정서중심 대처 전략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였다. 이는 대처 전략의 효과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의 통제 가능성, 사용자의 자원 수준, 사회문화적 맥락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기존 스트레스-대처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뚜렷하게 제기한다(Folkman and Moskowitz 2004; Kuo 2014).

셋째, 이 연구는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 여부라는 행태 변수를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으로 해석하여 스트레스-대처라는 관점에서 문화적응의 기제를 탐색하였다는 데 이론적 의의가 있다. 이는 대처 전략을 주로 내면적 반응으로 다루던 기존 연구의 분석 범위를 확장한 시도로, 사회정책적 개입을 스트

레스 반응의 행동적 전략으로 재개념화한 데 학술적 기여가 있다(Skinner and Zimmer-Gembeck 2007; Thoits 2011). 본 연구는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가 감정 조절, 심리적 안정, 소속감 회복 등 정서적 자원을 회복하는 행위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넷째, 이 연구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개인의 내적 심리기제에서 벗어나 사회생태학적 차원에서 재개념화하였다. 청소년의 적응은 개인의 심리 자원뿐 아니라 제도적 조건, 사회적 관계망, 문화적 접근성 등에 의해 형성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대처 전략이 실제로는 부모, 교사, 학교, 다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외부 환경에 의해 제약되고, 동시에 유도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처 전략을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만으로 환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스트레스-대처 이론이 구조적 불균형과 제도적 자원의 차이를 고려한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문제중심 대처 전략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은 결과는 기존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가정해 온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전제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문제중심 전략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해결하려는 방향에서 높은 자기효능감과 계획성, 정보탐색 능력 등을 요구하는 전략으로 정의되며(Carver et al. 1989; Compas et al. 2001),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유효하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Mattlin et al. 1990; Park et al. 2004).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은 차별, 언어 장벽, 제도적 배제 등 구조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 상황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으며, 스트레스의 반복성과 만성성이 문제중심 전략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Chun et al. 2006; Yakushko 2010). 더불어 문제중심 전략은 자율성과 심리적 자원을 요하는 전략인 만큼, 자원 접근성이 제한된 다문화청소년에게는 선택 자체가 어려운 전략일 수 있다(Heidinger 202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전략 유형 간 효과성을 단일한 위계로 설정하는 접근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대처 전략의 효과는 상황의 통제 가능성과 개인의 사회적 위치, 발달 수준에 따라 조건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정책적 함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으로서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서적 부담과 심리적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까지의 다문화정책은 주로 언어 교육과 학업 지원 등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본 연구는 정서 지지 중심 프로그램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의 핵심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다만,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처 전략의 활용이 낮아지기에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청소년이 프로그램 접근에서 배제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 설계 시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에 그치지 않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는 적극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사나 상담교사의 직접적인 연계, 학교 내 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치, 또래 멘토링과 같은 참여 유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단순한 지원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처 자원으로 전환되기 위한 핵심적 조건이 될 것이다.

둘째, 문제중심 대처 전략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은 결과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언어 교육, 교과 학습 지원, 진로 탐색 등의 문제 해결 중심 개입은 본질적으로 능동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거나, 참여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중심 대처 개입은 정서적 안정이 선행된 이후 단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정서적 개입과 병행되거나 연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 다문화 담당 교사, 상담교사 등과 더불어 지역 가족센터 등의 연계를 통해 학교 적

응도가 낮거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선행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확보한 후, 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참여로 연계되도록 하는 2단계 연계 구조로 설계하여 적응 지원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이미 해외에서 실천된 사례와도 맞닿아 있다. 예컨대 캐나다의 Learning Enrichment Foundation(LEF)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초기 정서 지원 후 언어 교육, 직업 훈련과 같은 문제 해결 중심 개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라는 심리·사회적 요소를 정책적 개입의 분석 틀로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 기존 다문화정책이 구조적 환경 개선과 통합 중심에 머물렀다면 본 연구는 대처 전략을 개인의 인식과 참여가 결합된 전략적 실천으로 보고, 그것이 정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정책 설계 시에는 단순한 자원 제공을 넘어 청소년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지, 즉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를 하나의 심리적 대처 전략으로 보고, 그 과정의 정서적 부담이나 지원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4)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앞선 논의에서 밝힌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 과정을 추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2기 1차의 초등학교 4학년으로 한정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년별 변화와 적응 과정을 동태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개인이 속한 학급 및 학교 등 위계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개인 수준 요인과 맥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장기적 결과 변수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이 직업 선택, 사회통합, 삶의 질과 같은 성인기 발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장기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해석은 일정한 한계를 내포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를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실천적 표현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동일한 참여 행위라 하더라도 청소년마다 그 의미와 활용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의 맥락을 세분화한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집단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이질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질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세부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고, 보다 맞춤형이고 세분화된 정책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의 주관적 경험이나 심층적인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과 같은 질적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 전략의 구체적인 맥락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교신: 김병조(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bjkim20@snu.ac.kr)

Correspondence: Byeong Jo Kim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bjkim20@snu.ac.kr)

2025.07.16 접수, 2025.07.18 심사, 2025.08.29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화·배은경,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2), 131-164.
- 김영혜·김다경, 2016, 경기도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지경 외, 201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5.

- 박동진·김송미, 2023,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4(1), 147-155.
-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손은영·서호찬, 2022,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4), 133.
- 양계민 외, 2019,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2019: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봉애·옥경희, 2013,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4), 511-538.
- 이래혁·장혜림,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양육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6), 65-95.
- 이상근 외,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문화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8), 235-264.
- 조연·손은령, 2021,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9), 323-339.
- 홍진주, 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erry, J. W. et al., 200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ry, J. W., 2006, Contexts of acculturation.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27(42), 328-336.
- Bhattacharya, G., 2000, The school adjustment of South Asian immigrant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dolescence*, 35(137), 77-85.
- Billings, A. G. and R. H. Moos, 1981, The role of coping responses and social resources in attenuating the stress of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2), 139-157.
- Birman, D. and E. J. Trickett, 2001, Cultural transitions in first-generation immigrants: Acculturation of Soviet Jewish refugee adolescents and par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4), 456-477.
- Birman, D. and N. Tran, 2008, Psychological distress and adjustment of Vietnamese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Association with pre-and postmigration facto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8(1), 109-120.

- Carver, C. S. et al.,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67-283.
- Chun, C. A. et al., 2006, Culture: A fundamental context for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Handbook of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 29-53.
- Coll, C. G. et al., 1996, An integrative model for the study of developmental competencies in minority children. *Child development*, 67(5), 1891-1914.
- Compas, B. E. et al.,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3), 405-411.
- Compas, B. E. et al., 2001,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roblems, progress, and potential in theory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27(1), 87-127.
- Connor-Smith, J. K. and B. E. Compas, 2002, Vulnerability to social stress: Coping as a mediator or moderator of sociotropy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 39-55.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No. 7). WW Norton & company.
- Evans, G. W. and P. Kim, 2013, Childhood poverty, chronic stress, self-regulation, and coping.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7(1), 43-48.
- Folkman, S. and J. T. Moskowitz, 2000, Positive affect and the other side of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55(6), 647-654.
- Folkman, S. and J. T. Moskowitz, 2004, Coping: Pitfalls and promise. *Annu. Rev. Psychol*, 55(1), 745-774.
- Frydenberg, E. and R. Lewis, 1993, Boys play sport and girls turn to others: Age, gender and ethnicity as determinants of coping. *Journal of Adolescence*, 16(3), 253-266.
- Heidinger, E., 2023, Overcoming barriers to service access: Refugees' professional support service utilization and the impact of human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24(1), 271-312.
- Herman-Stahl, M. and A. C. Petersen, 1996, The protective role of coping and social resources for depressive symptom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6), 733-753.
- Hobfoll, S. E., 1989, Conservation of resources: a new attempt at conceptualizing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4(3), 513-524.
- Holahan, C. J. and R. H. Moos, 1987, Person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5), 946-955.
- Hovey, J. D. and C. A. King,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1192.
- Jose, P. E. and C. S. Huntsinger, 2005, Moderation and mediation effects of coping by Chinese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adolesce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1), 16-44.
- Juang, L. P. and A. A. Alvarez, 2010, Discrimination and adjustment among Chinese American adolescents: Family conflict and family cohesion as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12), 2403-2409.
- Kim, J. E. et al., 2017, Discussion on integrated policies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According to the cases of managerial policies among several countries.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5(1), 31-42.
- Kuo, B. C. H., 2014, Coping,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among migrant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Health Psychology and Behavioral Medicine*, 2(1), 16-33.
- Lakhani, P. K. et al., 2017, School adjustment,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Social Sciences*, 7(10), 333-348.
- Lazarus, R. S. and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e, E. J. and S. Jeong, 2021, Analyzing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uth Korea: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7), 3683.
- Lee, J. Y. and G. H. Chung, 2016,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and coping strategies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3), 336-362.
- Mattlin, J. A. et al., 1990, Situational determinants of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 103-122.
- Motti-Stefanidi, F. and A. S. Masten, 2013, School success and school engagement of immigrant children and adolescents: A risk and resilience developmental perspective. *European Psychologist*, 18(2), 126-135.
- Noh, S. and V. Kaspar, 2003,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acculturation, and ethnic suppor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2), 232-238.
- Osher, D. et al., 2008, A comprehensive approach to promoting social, emotional, and academic growth in contemporary schools. *Best practices in school psychology*, 4,

- 1263-1278.
- Park, C. L. et al., 2004, The daily stress and coping process and alcohol us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5(1), 126-135.
- Pearlin, L. I. and C. Schooler,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2-21.
- Phinney, J. S., 1992,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A new scale for use with diverse grou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2), 156-176.
- Resnicow, K. et al., 2000, Cultural sensitivity in substance use preven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3), 271-290.
- Sam, D. L. and J. W. Berry, 2010, Acculturation: When individuals and group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mee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4), 472-481.
- Sandler, I. N. et al., 2000, Coping efficacy and psychological problems of children of divorce. *Child development*, 71(4), 1099-1118.
- Seiffge-Krenke, I., 1993, Coping behavior in normal and clinical samples: More similarities than differences? *Journal of Adolescence*, 16(3), 285-303.
- Sirin, S. R. et al., 2013, Understanding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rajectories of mental health symptoms for immigrant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4(5), 199-207.
- Sirin, S. R. and L. Rogers-Sirin, 2015, The educational and mental health needs of Syrian refugee children.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 Skinner, E. A. et al., 2003, Searching for the structure of coping: a review and critique of category systems for classifying ways of coping. *Psychological bulletin*, 129(2), 216.
- Skinner, E. A. and M. J. Zimmer-Gembeck, 2007, The development of coping. *Annu. Rev. Psychol.*, 58(1), 119-144.
- Suárez-Orozco, C. and A. K. Marks, 2016, Immigrant students and the contemporary immigration debate: The role of schools. Harvard Education Press.
- Suárez-Orozco, C. et al., 2009a, The significance of relationships: Academic engagement and achievement among newcomer immigrant youth. *Teachers college record*, 111(3), 712-749.
- Suárez-Orozco, C. et al., 2009b, Unraveling the immigrant paradox: Academic engagement and disengagement among recently arrived immigrant youth. *Youth & Society*, 41(2), 151-185.
- Thoits, P. A., 2011, Mechanisms linking social ties and support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2(2), 145-161.

- Wang, M. T. and R. Holcombe, 2010, Adolescents' perceptions of school environment,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7(3), 633-662.
- Wang, M. T. and J. S. Eccles, 2012, Social support matters: Longitudinal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ree dimensions of school engagement from middle to high school. *Child development*, 83(3), 877-895.
- Ward, C., 2001, The A, B, Cs of acculturation. In D. Matsumoto (Ed.), *The handbook of culture and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411-445.
- Xie, L. et al., 2022, School adaptation and adolescent immigrant mental health: Mediation of positive academic emotions and conduct problems. *Frontiers in Public Health*, 10.
- Yakushko, O., 2010,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the lives of recent immigrants: A grounded theory model.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32, 256-273.

Acculturative Stress and School Adaptat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 Mediating Effect of Problem-Focused and Emotion-Focused Coping Strategies

Jooui Kim* · Byeong Jo Kim**

Abstract Adolescence is a critical stage for identity and social belonging, and multicultural adolescents are vulnerable to acculturative stress from bicultural tensions, discrimination, and language barrier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school adaptation and the mediating role of coping strategies, conceptualized as behavioral indicators of multicultural program participation. Data were drawn from the first wave(2019)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Results showed that acculturative stress negatively influenced school adaptation, with only emotion-focused coping showing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Findings show th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d adaptation, highlighting the role of emotional coping in promoting adaptation. Policy implications emphasize the need for accessible participation and integrated emotional support. This study applies stress-coping theory to multicultural adolescents, extend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insights.

Keywords Acculturative Stress, School Adaptation, Stress-Coping Theory, Coping Strategies

*First autho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Ph.D.student,
kimjooui@snu.ac.kr

** Corresponding autho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ssociate
Professor, bjkim20@snu.ac.kr